



'2018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공개된 쌍용차 EV 콘셉트카 e-SIV 정측면.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포르쉐 AG 이사회 회장 올리버 블루메가 콘셉트 모델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를 소개하고 있다.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현대차, SUV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세계 최초 공개

제네바 모터쇼

올해 키워드는 '친환경차' 초점
180곳 업체 참여 900여종 차 전시
수입차 브랜드도 다양한 전기차 선보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 '제네바 모터쇼'가 8일(현지 시간) 막을 올렸다. 올해는 친환경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2018 제네바 모터쇼'에는 180개 자동차업체가 참가하며 신차 110종을 포함해 총 900여종의 차량이 전시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친환경 스포츠유틸

리티차량(SUV)을 일제히 선보이며 미래차 기술력을 자랑했다.

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4월 출시를 앞둔 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1회 충전으로 유럽 기준 최대 470km(64kWh 배터리 장착 시)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충전으로 54분 만에 80% 충전을 할 수 있다.

또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넥쏘와 아이오닉 시리즈 등을 함께 선보였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PHEV를 이번 모터쇼 기간 전시한다.

'SUV 명가' 쌍용자동차는 전기차(EV) 콘셉트카인 'e-SIV'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e-SIV는 지난 제네바 모터쇼

에서 선보인 SIV-1(2013년), SIV-2(2016년)에 이은 세번째 SIV 시리즈다. 쿠페스타일의 외관 디자인과 커넥티드카 서비스, 자율주행기술 등 쌍용차의 미래차 기술이 집약된 모델이다.

수입차 브랜드들도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브랜드 EQ를 통해 하이브리드 기술과 디젤엔진을 결합한 디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세계 최초 공개했다. 재규어도 최고출력 400마력에 1회 충전으로 480km를 달리는 고성능 SUV 전기차 I-페이스를 선보였다.

전기차 브랜드 변신을 선언한 폴크스바겐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

콘셉트카 I.D. 비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아우디는 순수 전기차 SUV 'e-트론(Tron)'을 처음 공개했다. e-트론은 아우디 최초의 전기 SUV 모델로 올해 하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다.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그동안 주행 성능에 집중했던 슈퍼카 브랜드들도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이동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독일 스포츠카 제조업체 포르쉐는 전기차 콘셉트 모델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4도어 모델 미션 E 크로스 투리스모는 오프로드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및 아이트래킹 기능이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결합했다. 전장 4.95미터, 사륜 구동, 800볼

트 전압 시스템의 고속 충전 네트워크 충전을 지원한다.

벤츠리도 친환경차 모델을 이번 모터쇼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한 '벤테이가 V8' PHEV 모델은 차세대 V6 3.0 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인 'E 모터'가 결합된 모델로, 전기로만 주행할 경우 1회 충전으로 50km가 가능하다.

람보르기니는 이날 전기 스포츠카의 콘셉트카 '테르조 밀레니오'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람보르기니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협력해 개발한 모델로, 슈퍼스포츠카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S9·S9+'로 中 시장 공략

지난해 빅스비 중국어 버전 출시도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9'·'갤럭시 S9+'를 앞세워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6일(현지시간) 중국 광저우 하이신사에서 중국 파트너·미디어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 S9과 갤럭시 S9+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부장 사장은 이날 발표회 기조 연설에서 "삼성엔 진정한 중국 현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중국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지속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연구·개발·생산·판매·서비스 등 전 조직을 융합한 사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중국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바이두, 알리바바, 위챗, 모바이크, 징둥 등 중국 현지 업체와 협업은 물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중국 소비자에 맞춰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국어, 영어에 이은 세 번째 지원 언어로 인공지능 서비스인 '빅스비'의 중국어 버전을 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S9·갤럭시 S9+는 중국에서 오는 16일부터 미드나잇 블랙, 코랄 블루, 라일락 퍼플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정은미 기자 21cindi@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 'K9' 렌더링 이미지 공개

볼륨감·입체감으로 '세련美' 강조

기품있는 외관·주행신기술 집약
첨단 지능형 안전기술 대거 적용



기아차 신형 K9 외장 렌더링 이미지.

기아자동차가 다음달 출시할 플래그십 세단 'K9'의 렌더링 이미지를 7일 공개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신형 K9은 '응축된 고급감과 품격의 무게'란 디자인 주제에 맞춰 대형 럭셔리 세단에 맞는 볼륨감과 입체감을 강조했다. 풍부한 볼륨감과 입체감이 강조된 면 처리를 통해 응축된 에너지가 차량 전체로 균형 있게 확산되는 느낌을 고급스럽고 세련됨을 강조했다. 이는 회사측 설명이다.

전면부에는 빛의 궤적을 동적으로 형상화한 LED 헤드램프, 에너지가 변화하는 형상을 시각화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다. 측면부는 균형 잡힌

비례감을 기반으로 전체적으로는 안정적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긴장감 있는 면 처리와 변화감 있는 캐리타이언을 통해 강력하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후면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도 빛의 움직임을 형상화했다.

또 최상의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도 대거 적용됐다. 동급 최초로 차로유지보조(LFA)가 탑재됐다. 전방 레이더와 카메라로 차간거리 유지 및 차로 중앙 주행이 가능하도록 조향과 가속을 제어해 준다. 안전한 차선 변경을 돕는 후측방 모니터(BVM)와 곡선 구간 주행시 속

도를 줄여 안전을 확보하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 전면 주차 차량의 후진 출차 시 차량 충돌을 막는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기능도 갖췄다. GPS와 연계해 차량이 터널에 진입할 때, 창문과 공조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터널연동 자동제어 기능도 탑재해 운전자의 편의를 높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신형 K9은 웅장하면서도 기품 있는 외관과 첨단 지능형 주행신기술이 대거 집약된 플래그십 세단"이라며 "기아차의 디자인과 기술력의 정수로서 고급차의 새로운 지평 열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NHN페이코 맞춤혜택·신학기 이벤트 '핑핑'

간편결제 전문기업 NHN페이코는 '페이코(PAYCO)'에 '맞춤혜택' 코너를 신설하고, 신학기를 기념해 이벤트를 연다고 7일 밝혔다.

페이코 맞춤혜택은 개별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할인 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코너다. 전월 구매 금액과 건수로 산정되는 'VIP 등급별 프로모션' 혜택과, 페이코와 손잡고 펼치는 각종 가맹점 할인혜택을 종합해 보여준다. 이용자는 이곳에서 각종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결

제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NHN페이코는 신학기를 맞아 이달 한달 간 대학가에 위치한 각종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음 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15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대학가에 조성된 페이코존(PAYCO ZONE)뿐 아니라 카페 '이디야', '빽다방', '커피그루나루', 화장품 매장 '이니스프리', 외식 브랜드 '자연별곡'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간 내 첫 결제 시 다음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1000



원 쿠폰과 500원 쿠폰을 차례로 제공한다. 과일음료 전문점 '쥬씨'의 경우 500원 할인쿠폰을 월 2회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2018년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웹콘텐츠디자이너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월 22일 ~ 8월 10일(월-금 14:00-18:00)
교육내용	그래픽디자인(포토샵, 일러스트, 편집디자인) 웹퍼블리싱(html5, css, 워드프레스) 색채학, 쇼핑물 제작, 현장실습
참가대상	초대졸 이상 취업희망 여성 ·20~30대 청년층 6개월이내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접수기간	2018년 3월 20일(화) 18시까지(연말일정 개별통보)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nambu@seoulwomanup.or.kr)

※ 본 과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02)802-0922 검색하세요~!